

현용 한·일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의 어종 및 어구성 연구

尹慧仁* · 李美淑**

[요지]

본고는 한국과 일본에서 2020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의 어종(語種) 및 어구성(語構成)에 주목하여, 이를 『分類語彙表』(1964)에 의거하여 의미분포상의 특징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역으로 의미범주별로 어종 및 어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언어학적, 의미론적 관점에서 양국 교과서 어휘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유의차를 산정하여 대조하였다. 양국의 교과서 어휘는 개별어수에서는 유사한 특징을 보이거나 전체어수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어수의 경우, 한국은 어종에서는 한자어와 혼종어, 어구성에서는 복합어의 비중이 높고 더불어 구성성분이 3개 이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일본은 어종에서는 고유어와 외래어, 어구성에서는 단일어 및 파생어의 비중이 높고, 한국에 비해 접두사의 사용량이 많았다.

5개 의미분야별로 보면 양국 모두 <1.5자연물 및 자연현상>, <1.1추상적 관계>에서는 고유어, <1.3인간활동-정신 및 행위>에서는 한자어 비중이 높다. 특히, 전자는 일본, 후자는 한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1.4생산물 및 도구>에서는 한국은 한자어, 일본은 고유어 비중이 높다. 어구성에서 양국은 5개 의미분야 모두 단일어의 비중이 높고, 특히 일본이 상대적으로 높다. 파생어 및 복합어는 양국 모두 <1.4> 및 <1.2인간활동의 주체>에서 비중이 높고, 특히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상을 통해, 양 어휘의 의미분포와 언어적 특성이 맞물리면서 어종 및 어구성에서 양국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 어종, 어구성, 의미분포

1. 연구 목적

한국과 일본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 검정(檢定)을 거친 교과서(教科書)를 사용하고 있다. 이중 국어교과서는 부록 및 자료를 제외하면 「텍스트」와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는 2020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이하, 교과서)의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어종(語種)」 및 「어구성(語構成)」에 주목하되, 이를 의미분포(意味分佈)와 관련지어 비교 분석한다. 역(逆)으로 의미범주별로 어구성 및 어종을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교과서 어휘를 언어학적, 의미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일본어학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 대조언어학 (교신저자)

2. 분석 대상 및 방법

2.1 분석 대상 교과서 및 어휘

〈표1〉은 분석 대상 교과서이다. 해당 교과목은 양국 모두 공통 교육과정의 국어과 내용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종합한 과목으로, 그 성격 및 위상이 유사하다. 한국은 2018년, 일본은 2017년에 개정(改定)되어 현용(現用)중인 교과서이다.¹⁾ 어휘 채집 범위는 텍스트에 한정하되²⁾, 이른바 개념을 나타내는 체언(명사, 대명사, 의존명사, 수사 등)에 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표1〉 분석 대상 교과서

	집필자 (출판사)	교과서	검정필	학년	사용기간
한국	박영목 외 11명 (천재교육)	국어	2017	고1	2018년~현재
일본	東郷克美 외 28명 (第一学習社)	標準 国語総合	2016	고1	2017년~현재

표본 수 및 범위에 한계가 있지만, 일종의 표본조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김(1995:67-68)에서도 소량의 자료를 가지고도 순수한 양적 측면의 연구는 별도의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해당 과목의 시간 기준 배당을 보면 서울 및 도쿄 소재의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은 113.3시간, 일본은 145.8시간으로, 일본이 35.5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李2019).

〈표1〉의 교과서에서 본문(학습활동 제외)에 해당하는 텍스트 페이지수와 해당 텍스트에서 추출한 어휘(체언)는 〈표2〉와 같다. 서로 다른 단어의 수를 의미하는 개별어수(個別語數) 및 총 빈도를 알 수 있는 전체어수(全體語數)로 계량화하여 분석한다.

〈표2〉 양국의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체언)의 페이지수와 개별어수 및 전체어수

	페이지수(p)	개별어수	전체어수
한국	155p	3,411어	11,522어
일본	257p	3,439어	11,330어

본고는 李(2019)의 어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어종 및 어구성 분석의 특성상 일부 원칙(예를 들어, 단·복수 구분)을 수정하여 재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수치에 차이가 있다. (일본어의 경우, 표기는 가능한 한 한자로 변환하여 통일하였다.)

・학생(한자어, 단일어), 학생들(혼종어, 파생어) ・私(고유어, 단일어), 私達(고유어, 파생어)

또한, 개개 인명(人名) 및 지명, 서명 등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어종 및 어구성의 판별이 어렵고 어휘량이 많아 자칫 전체 교과서 어휘의 객관적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의미

1) 5종 이외의 검정 교과서중 상대적으로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이다.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 채택률을 공개하지 않아, 출판사 및 교과서 총판의 통계에 의하였다.

2) 해당 교과서는 부록 등을 제외하고 텍스트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진 본교재의 양은 한국 439쪽, 일본 330쪽으로 한국이 많으나, 한국이 학습활동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텍스트의 양은 일본이 많다. 단, 글자수, 언어적 특징은 고려하지 못했다.

분야별 어종 구성을 다룬 宮島(1980:2) 역시, 인명 및 지명을 제외하고 있다.

2.2 원칙 및 분석 방법

어휘는 단어의 집합이다. 해당 사회의 어휘가 가지는 어종 및 어구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휘의 계량적 속성을 활용하되, 여기에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分類語彙表』(1964)를 활용하여 의미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원칙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어종」이란 어원(語源)에 주목한 것으로, 예로부터 해당 언어에 존재하는 「고유어」, 이른 시기에 중국에서 차용한 「한자어」, 근대 이후 서구에서 유입 정착된 「외래어」로 나누되, 이들이 2개 이상 결합한 경우를 「혼종어(混種語)」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단, 「상투·배추」³⁾와 같이 오랜 시간이 흘러 발음과 형태가 바뀌어 토착화가 진행된 이른바 귀화어(歸化語)는 고유어로 간주한다.

(2) 「어구성」이란 단어의 형성에 주목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 최소한의 단위인 하나의 어기(語基)로 이루어진 「단일어」⁴⁾와 둘 이상의 어기, 또는 접사(接辭)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나눈다. 합성어에는 어기와 어기가 결합된 「복합어」와 어기와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로 세분하여 분석한다.⁵⁾ 다음과 같이, 3개 이상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우에는 최종 결합으로 판정한다. (참고로 접사는 위치에 따라 접두사, 접미사라 부른다. 본고에서는 단위명사의 경우도 접미사와 같이 다룬다.)

- 기계화영농: [기계(어기)+화(접사)] + 영농(어기) → 복합어
- 구성요소들: [구성(어기)+요소(어기)] + 들(접사) → 파생어

한자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社會・經濟」 등과 같은 2자 한자어의 경우, 한자가 갖는 표의(表意)적 특성으로 인해 복합어라 볼 수 있으나 2자가 모여 비로소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단일어로 본다. 단, 각각 1자어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南北・男女」 등은 복합어로 본다. 또한, 일본어의 경우, 「右手(みぎて, 오른손)」과 같이, 혼독 고유어는 복합어로 보되, 「言葉(말)・試合(시합)」⁶⁾와 같이, 어원은 복합어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 및 표기가 변화하거나 어기의 의미가 소멸된 경우에는 단일어로 본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社會・經濟 (한일 공통:한자어, 단일어)
- 南北・男女 (한일 공통:한자어, 복합어)
- 右手 (일본어:고유어, 복합어, 한국어:해당 한자어 없음)
- 言葉 (일본어:고유어, 단일어, 한국어:해당 한자어 없음)
- 試合 (일본어:고유어, 단일어, 한국어:한자어, 단일어)

3) 「상투」는 복두칠성을 의미하는 상두(上斗), 「배추」는 백채(白菜)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4) 「단순어(單純語)」라 부르기도 한다. (山本2005:222, 森田1989:51 등)

5) 본고와 달리 복합어를 상위(上位)에 두고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고 있는 경우도 있다.

6) 「言葉」 및 「試合」의 어원은 「言(こと)+端(は)」, 「し+合い」의 구성을 가진 복합어이나 현대어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단일어로 본다. (語源由来辞典: <http://gogen-allguide.com/ko/kotoba.html>)

참고로, 「日の丸・草の戸・富士の山」 등은 어구성의 면에서 연어(連語)라 할 수 있지만, 관용적으로 한 단어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아 복합어로 본다(山本2005).

파생어는 어기 등에 붙어 새로운 의미를 더하며 생산성을 가지는 이른바 접사의 인정범위가 중요하다. 본래 접사는 아니었으나 접사화된 경우나 역으로 생산성을 잃어 사어(死語)가 된 경우가 있다. 후자의 예로, 「잎사귀・모가지」의 「-사귀・-아지」는 각각 「잎・목」 이외에는 붙지 않아 생산성이 없으나 어감의 차이를 가져오므로 접사로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잎사귀・모가지」는 파생어로 본다.

(3) 어종 및 어구성을 어휘의 의미분포와 관련지어 분석하기 위해, 『分類語彙表』(1964)에 의해 5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다. 여기서 「分類語彙表」란 「하나의 언어체계 속에서 그 어휘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단어가 각각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일람할 수 있도록 단어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의 세계를 분류해서 그 분류항목에 각 단어를 배당한 것」⁷⁾이다. 어휘를 품사론적 관점에서 크게 「명사(체언)」, 「동사」, 「형용사・부사」, 「기타」로 나누고 있는데 본고의 분석 대상인 「명사(체언)」는 <1.1추상적 관계>, <1.2인간활동의 주제>, <1.3인간활동—정신 및 행위>, <1.4생산물 및 도구>, <1.5자연물 및 자연현상>의 5개 부문으로 대분류된다. 이하, <1.1>, <1.2>와 같이 약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4) 양국의 어휘 비교에 있어 전체 표본의 규모가 다르므로 어휘수와 비중을 사용하여 「카이제곱검정(檢定)」(Chisquared test)을 통해 카이제곱값(χ^2 값)을 산출하여 유의차(有意差)를 분석한다. 본고에서는 위험률 99.99% 이상의 확률(χ^2 값 6.635 이상)에서 유의차가 발생하는 항목을 유의차가 나타난 것으로 인정한다.⁸⁾

3. 선행연구 분석

張(2005)에서는 1945~1997년 까지 한국 일본어학계에서 발표된 어휘교육 관련 논문은 어휘논문 전체의 14.7%(33편)인데, 그 대부분이 고등학교 제2외국어인 일본어 교과서의 어휘조사 및 오용연구라 밝힌 바 있다. 한·일 양국의 국어교과서 어휘의 의미분포 대조가 활발해진 것은 2000년 이후로, 李(2004), 金(2004), 宋(2009), 申(2009)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李(2016, 2018a, 2019)에서는 양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어휘의 의미분포를 분석하였고, 李(2018b)에서는 중·고등학교 학교 급별 교과서 어휘의 난이도를 분석하고 있다. 최근 2년, 즉 2017~2018년의 어휘연구에서는 어종 및 어구성에 관한 연구가 줄고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姜2019), 줄고 尹 외(2019)에서는 양국의 개정 전 중·고등학교 교과서 어휘의 어종 및 어구성을 분석한 바 있다. 본고는 尹 외(2019)를 바탕으로, 현용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표3>은 한국의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일본의 『新選国語辞典』(2002)의 표제어를 어종의 관점에서 분류한 것으로, 裋 외(2015:156)에서 인용하였다. 양국 모두 한자어, 고유어, 혼종어, 외래어 순으로 비중이 높고, 한국은 일본보다 한자어와 혼종어, 일본은 한국보다 고유어와 외래어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⁹⁾

7) 國立國語研究所 『分類語彙表』(1964:1)

8) 申(2009) 참조

9) 단 어휘량에서 차이가 많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논외로 한다.

〈표3〉 한·일 사전 표제어에 나타난 어종 (개별어수, 필자 편집, ()안은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계
한국	111,156(25.2)	252,278(56.3)	24,019(5.5)	53,141(12.1)	440,594(100)
일본	24,708(33.8)	35,928(49.1)	6,415(8.8)	6,130(8.4)	73,181(100)

裴 외(2015:162-163)에서는 조(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와 일본 國際交流基金「일본어능력 시험기준」(1994)의 어휘를 대조하였다. 참고로, 이들 두 어휘의 특징은 이른바 「특정 언어의 학습에 기본이 되는 어휘」, 즉 기초어휘(基礎語彙)이다. 체언에 한정하여 제시하면 〈표4〉와 같다.

〈표4〉 한·일 기초어휘의 체언에 나타난 어종 (개별어수, 필자 편집, ()안은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계
한국	764(22.6)	2,258(66.8)	225(6.7)	133(3.9)	3,380(100)
일본	1,192(22.2)	3,543(66.2)	481(9.0)	141(2.6)	5,359(100)

양국 모두 사전의 표제어를 다룬 〈표3〉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거나 한자어가 크게 늘고 외래어가 약간 증가했으며 고유어 및 혼종어의 비중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玉村(2005:23-24)에서는 「사용률이 높고 많은 층에 걸쳐 출현하는」 이른바 기본어휘(基本語彙)의 경우에는 고유어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외래어의 경우 의미의 한정·특수화가 일어날 수 있고 한자어 역시 2자 이상의 구성을 거치면서 의미의 특수화가 일어나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휘연구에서 어휘의 성격에 따른 특징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5〉는朴 외(2016)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외국동화 번역에 사용된 어휘의 어종이다. 어휘의 특성으로 인해, 〈표3〉, 〈표4〉에 비해 양국 모두 한자어 비중이 크게 줄어 10% 전후에 불과하고 고유어의 비중은 각각 76.5%, 84.3%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5〉 미취학 아동을 위한 외국동화 번역에 나타난 어종 (개별어수, 필자 편집, ()안은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계
한국	1,196(76.5)	179(11.5)	24(1.5)	164(10.5)	1,563(100)
일본	1,137(84.3)	98(7.3)	32(2.4)	82(6.1)	1,349(100)

단, 여전히 한국은 한자어 및 혼종어, 일본은 고유어 및 외래어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다음 예로 설명될 수 있다.¹⁰⁾ 상대적으로 한국이 동화에서도 한자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거인(巨人, 한자어): 人食い鬼(식인괴물, 고유어)
- 연기(煙氣, 한자어): けむり(연기, 고유어)
- 문(門, 한자어): ドア(door, 외래어)
- 식탁(食卓, 한자어): テーブル(table, 외래어)

10) 朴 외(2016) 재인용

이상과 같이 어휘조사의 성격에 따라 양국 간 비중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어구성과 관련된 어휘조사를 살펴본다. <표6>은 뮌(2013)에서 양국의 신문 사회면의 어휘를 분류한 것이다. 양국 모두 단일어가 60%를 상회하고 있고 복합어, 파생어 순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6> 신문 사회면 어휘의 어구성 (개별어수, 필자 편집, ()안은 %)

	단일어	합성어		계
		복합어	파생어	
한국	1,786(65.1)	585(22.8)	372(13.6)	2,743(100)
일본	1,960(61.7)	809(25.5)	404(12.7)	3,173(100)

<표7>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동화에 사용된 어휘의 어구성으로,朴 외(2016)에서 인용한 것이다. 양국 모두 단일어의 비중이 55%를 상회하고 있다. <표7>과 비교하여 단일어의 비중이 낮고 파생어의 비중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7> 미취학 아동을 위한 외국동화 번역에 나타난 어구성 분류 (개별어수, 필자 편집, ()안은 %)

	단일어	합성어		계
		복합어	파생어	
한국	881(56.4)	400(25.6)	282(18.0)	1,563(100)
일본	208(59.5)	281(20.8)	265(19.6)	1,349(100)

동화의 특성상, 양국 모두 「-들・-씨」, 「-達・-さん」 등과 같은 접미사가 많고, 특히 일본의 경우, 「お・ご-」 등의 접두사가 사용된 예가 많아, 결과적으로 파생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宮島(1980:4-5)에서는 현대잡지 90종의 어휘중 상위 7,000어의 전체어수를 『分類語彙表』(1964)에 의해 분야별로 어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8>과 같다. 어종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음영으로 표시한다. (숫자는 전체 품사를 포함한 사용률로, 천분율(‰)임. ()안은 의미범주별 비중임.)

<표8> 5개 대분류별 어종의 사용률(‰)¹¹⁾ (전체어수, 필자 편집 및 번역)

	의미범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1.1	추상적 관계	87.669(34.0)	162.083(62.8)	5.626(2.2)	2.566(1.0)
1.2	인간활동의 주체	30.667(39.0)	43.950(55.9)	2.384(3.0)	1.612(2.1)
1.3	인간활동-정신 및 행위	18.151(18.5)	75.674(77.0)	2.412(2.5)	2.045(2.1)
1.4	생산물 및 도구	10.221(36.6)	11.306(40.5)	5.418(19.4)	0.985(3.5)
1.5	자연물 및 자연현상	20.450(65.6)	9.650(30.9)	0.892(2.9)	0.198(0.6)

그 결과, 고유어는 몸, 색(色) 및 맛 등의 자극, 동물 등과 관련된 <1.5>에서 많고, 한자어는 경영,

11) 「‰」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천분율로 전체를 1,000으로 볼 때의 비율이다.

정치, 교육 등의 인사(人事), 행위 등을 나타내는 <1.3> 및 양상 등을 나타내는 <1.1>에서 많으며, 외래어는 의복, 기계, 자재, 식료 등 <1.4>에서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6장에서 양국의 교과서 어휘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李(2019)에서는 본고와 동일한 양국의 교과서 어휘의 의미분포를 대조하였는데, 5개 대분류에서 개별어수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체어수에서는 한국이 <1.2>, <1.3>, <1.4>에서, 일본이 <1.1>, <1.5>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중분류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이야기·담화>, <경제>, <전기>, <기계>, <약제>에서 유의차가 높았고, 그 외에도 <인간>, <가족>, <관직>, <군인>, <군(軍)>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을 표방한 현행 교육과정의 개정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평가되나 여전히 인간 및 가족, 상대적 지위 중심의 유교 문화적 특징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에 비해 <창작·저술>, <예술·문예>, <문헌·도서>에서 유의차가 높았는데, 이는 일본이 이번 교육과정 부분 개정에서 오히려 고전 등의 문학교육을 강화한 결과라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본고의 어종 및 어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尹 외(2019)에서는 개정 전 양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어휘를 대상으로 어구성 및 어종의 측면에서 분석하되 의미분포에 나타난 특징과 관련지어 학교급 간 차이를 밝혔다. 전체어수에 한정하여 제시하면, 어종에서 한국은 중학교는 외래어, 고등학교는 혼종어에서 유의차가 나타났고, 일본은 고등학교의 경우 외래어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구성에서는 양국 모두 중학교는 단일어, 고등학교는 복합어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구성 성분수를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복합적이었고 일본에 비해 학교 급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을 보면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에서 차이가 컸다.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이하, 분석해 간다.

4. 한·일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의 어종

「어종」의 정의와 세부 분류에 대하여는 2.2를 참조 바란다. <표9>는 <표2>의 어휘를 어종에 의해 분류한 것이다. 각각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99.99% 이상의 확률로 유의차(χ^2 값 6.635 이상)를 구하였다. 유의차가 발생한 항목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이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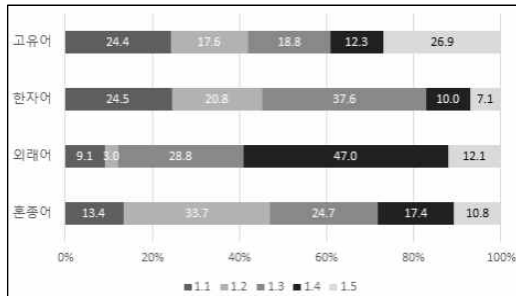
<표9> 한·일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의 어종 (()안은 %)

	개별어수					전체어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계
한국	1,090 (31.9)	1,911 (56.0)	66 (1.9)	344 (10.0)	3,411 (100)	5,275 (45.8)	5,439 (47.1)	128 (1.1)	680 (5.9)	11,522 (100)
일본	1,169 (34.0)	1,823 (53.0)	215 (6.3)	232 (6.7)	3,439 (100)	6,217 (54.9)	4,214 (37.2)	459 (4.0)	440 (3.9)	11,330 (100)
χ^2 값	3.214	6.277	81.110	24.783		188.815	234.705	197.327	49.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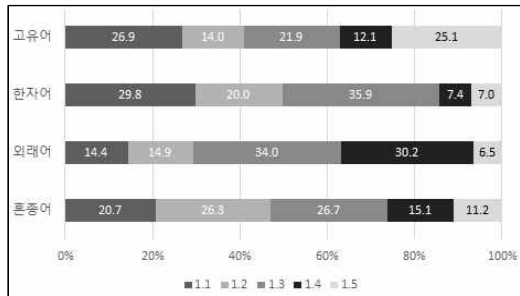
먼저, 개별어수에서 한국은 혼종어, 일본은 외래어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어수에서는 일본이 고유어의 빈도가 20.9% 높아지면서 고유어 및 외래어에서, 한국은 한자어 및 혼종어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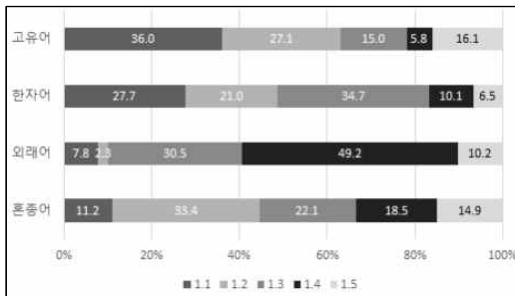
〈그림1~4〉는 〈표9〉의 어휘를 어종별로 『分類語彙表』(1964) 상의 5개 대분류의 의미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지어 이하, 각각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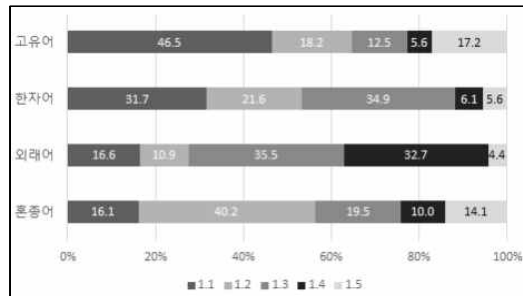
〈그림1〉 한국 개별어수 어종별 의미분포



〈그림2〉 일본 개별어수 어종별 의미분포



〈그림3〉 한국 전체어수 어종별 의미분포



〈그림4〉 일본 전체어수 어종별 의미분포

4.1 고유어

한국 교과서에서 고유어는 개별어수 1,090어, 전체어수 5,275어로, 단어당 평균 4.8회가 쓰였고 일본은 개별어수 1,169어, 전체어수 6,217어로, 단어당 평균 5.3회가 쓰였다. 〈그림1~4〉와 같이 양국 모두 개별어수는 〈1.1〉 및 〈1.5〉, 전체어수는 〈1.1〉 및 〈1.2〉에서 높다. 단, 일본은 〈1.1〉이, 한국의 〈1.2〉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은 상위빈도 15어이다. (*표는 의존명사임. 이하 같음.)

- 한국: 것*(366), 나(210), 수*(196), 내(126), 사람(122), 말(103), 때(99), 우리(99), 일(68), 집(67), 그(3 인칭, 63), 손(51), 너(48), 소리(45), 앞(45)
- 일본: の*(518), こと*(431), それ(131), 人(129), もの*(128), 僕(91), 時(89), 私(84), 中(空間, 80), これ(69), 女(65)¹²⁾, 上(55), 何(51), 今(47), 目(44)

한국은 상위빈도어에 〈1.1〉의 「것·나·수·때», 〈1.2〉의 「나·내·사람·우리·그·너」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일본은 〈1.1〉의 「の·こと·もの·とき·中」 등이 압도적으로 많고 〈1.2〉는

12) 「女」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며, 「女の人・女の方」의 일부가 아니냐는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실제 「夢十夜」(夏目漱石) 등의 지문에서 다량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人・僕・私・女」등 4어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4.2 한자어

한국 교과서에서 한자어는 개별어수 1,911어, 전체어수 5,439어로, 단어당 평균 2.8회가 쓰였고 일본은 개별어수 1,823어, 전체어수 4,214어로, 단어당 평균 2.3회가 쓰였다. <그림1~4>와 같이 양국 모두 개별어수 및 전체어수에서 <1.3>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1>이 높다. 다음은 상위빈도 15어이다.

- 한국: 동물실험(55), 경운기(52), 자신(37), 방법(36), 민씨(33), -일(日,33), 상대방(32), 내용(32), 종(鐘,32), -년(31), 관사(29), 문제(29), 인간(27), 책(27), 공정여행(26)
- 일본: 情報(50), 下人(45), 方*(42), 老婆(34), 日本(33), 人間(31), 古典(27), 世界(27), 時間(22), 意味(21), 筑波山(21), -度(20), 最後(19), 貨幣(19), 以上(18)

양국 모두 「동물실험・방법・내용・책・공정여행」, 「情報・古典・意味」 등 <1.3> 및 「-일・-년」, 「方・時間・-度・最後・以上」 등의 <1.1>에 속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4.3 외래어

한국 교과서에서 외래어는 개별어수 66어, 전체어수 128어로, 단어당 평균 1.9회가 쓰였고 일본은 개별어수 215어, 전체어수 459어로, 단어당 평균 2.1회가 쓰였다. <그림1~4>와 같이 개별어수에서는 양국 모두 <1.4>에서 비중이 높았고 전체어수에서는 한국은 <1.4>, 일본은 <1.3>에서 높다. 다음은 상위빈도 15어이다.

- 한국: 로봇(17), 인서트(7), 컷투(6), 이미지(4), 카드(4), 헬륨(4), 게임(3), 인터넷(3), 탈리도마이드(3), 트럭(3), 페인트(3), -퍼센트(3), -와트(3), 선글라스(2), 내레이션(2)
- 일본: コミュニケーション(23), スイッチ(15), マニュアル(15), ジャンプ(10), OFF(9), バット(8), ボール(8), -ページ(8), ベンチ(7), ラット(7), リンク(7), グラウンド(6), コンプレックス(6), オレンジジュース(6), ホームラン(6)

개별어수 및 전체어수 모두 한국은 <1.4>의 비중이 높는데 주로 「로봇・태블릿PC・드론・슈퍼컴퓨터」 등의 기계 및 「헬륨・탈리도마이드・마그네슘」 등 화학약품 관련이다. 일본은 「コミュニケーション・マニュアル」 등의 이야기 및 「ボール(야구 용어)・グラウンド・ホームラン」 등 야구 관련 단어가 많아 인간 행동을 나타내는 <1.3>에서 비중이 높다.

4.4 혼종어

한국 교과서에서 혼종어는 개별어수 344어, 전체어수 680어로, 단어당 평균 2.0회가 쓰였고 일본은 개별어수 232어, 전체어수 440어로, 단어당 평균 1.9회가 쓰였다. <그림1~4>와 같이 양국 모두 개별어수 및 전체어수에서 <1.2>의 비중이 가장 높다. 다음은 상위빈도 15어이다.

- 한국: 종소리(23), 등나무(21), 손건조기(14), 첫번째(14), 등나무운동장(13), 청기와(11), 한글맞춤법(11), 들꽃축제(10), 명은이외할머니(10), 손수건(10), 선생님(10), 원소들(10), 풀꽃축제(9), 농사꾼(8), 학생들(7), 전문가(6)
- 일본: 自分達(78), アゲハチョウ(24), イースター島(12), 彼女(8), 芋づる法(8), クロマニヨン人(7), 豚カツ(6), 否定側(5), 僧達(5), 弟子達(5), 宿泊カード(4), 真珠貝(4), ネアンデルタール人(4), ポリネシア人達(4), 漁師達(4)

「혼종어」의 경우 양국 모두 <1.2>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선생님·농사꾼·학생들」, 「自分達」 등과 같이 한자어에 고유어 접사가 붙거나 일본어의 「ネアンデルタール人」과 같이, 외래어에 한자어 접사가 붙은 예가 많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종소리·등나무」 등과 같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두드러지고 「명은이외할머니」의 경우와 같이 「인명+외(한자어)+할머니(고유어)」와 같은 구조가 특징적이다.

〈표10〉은 혼종어의 출신 성분 구성을 나타낸 표이다. 단,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표10〉 혼종어의 성분 구성 (개별어수, ()안은 %)

	한자어+고유어	한자어+외래어	고유어+외래어	고유어+한자어+외래어	기타	계
한국	305(88.7)	32(9.3)	2(0.1)	2(0.1)	3(0.1)	344(100)
일본	163(70.3)	51(22.0)	11(4.7)	0	7(3.0)	232(100)

먼저, 양국 모두 「종(한자어)+소리(고유어)」, 「自分(한자어)+達(고유어)」와 같은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각각 88.7%, 70.3%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양국 모두 한자어가 오랜 세월 쓰이면서 고유어와 유연하게 접속하고 있다. 「게임(외래어)+기(한자)」, 「豚(한자어)+カツ(외래어)」와 같은 한자어와 외래어의 결합은 한국 9.3%, 일본 22.0%로, 일본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상위빈도 10어이다.

- 한자어+고유어
 - 한국: 종소리(23), 등나무(21), 첫번째(14), 손건조기(14), 등나무운동장(13), 한글맞춤법(11), 청기와(11), 선생님(10), 원소들(10), 농사꾼(8)
 - 일본: 自分達(78), アゲハ蝶(24), 芋づる法(8), 否定側(5), 僧達(5), 弟子達(4), 漁師達(4), 両手(4), 真珠貝(4), 見出し語(3)
- 한자어+외래어
 - 한국: 게임기(4), 서비스업(4), 기사작성로봇(3), 원형파이프(3), 모더니즘건축(3), 컴퓨터모의실험(2), 대형호텔(2), 로봇시대(2), 텔레비전방송(2), 비행간염백신(1)
 - 일본: 豚カツ(6), 宿泊カード(4), ファストフード店(3), メンバー表(3), レファレンス資料(3), 検索エンジン(3), 難民キャンプ(2), 応援スタンド(2), NATO軍(2), 電磁パルス(2)

다음으로 고유어와 외래어의 결합은 한국은 「달빛카드·꽃무늬원피스」 등이 있으나 0.6%에 불과했다. 일본은 「ベンチ入り・レギュラー組・相手チーム」 등 야구 용어에서 많아 4.7%를 나타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모두 결합한 경우는 한국에서만 2어 나타났는데, 「등나무운동장프로젝트·스테인리스물잔」이 그 예이다. 그밖에 「손주·용돈」, 「彼女·具合」와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가 1자씩 결합한 2자 단어중, 조어상 합성어에 해당되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현대에서 단일어처럼 인식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 편의상 이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이상, 고유어의 경우, 의존명사 및 자연물에 많아, 양국 모두 <1.5>, <1.1>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자어는 양국 모두 <1.3>의 비중이 높다. 외래어는 한국은 기계 관련 단어에서 사용되어 <1.4>에서 높고 일본은 야구 관련 단어에서 사용되어 <1.3>의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혼종어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에 복수형 접미사가 붙은 단어가 많이 쓰여 <1.2>의 비중이 높다. 양 언어가 갖는 언어적 특징과 어휘의 의미분포가 맞물려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한·일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의 어구성

본고에서는 어구성을 형태론적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결합하는지, 나아가 의미적 관계는 어떠한지에 주목한다. 어구성의 정의와 세부 분류에 대하여는 2.2를 참조 바란다. <표11>은 앞의 <표2>의 어휘를 어구성에 의해 분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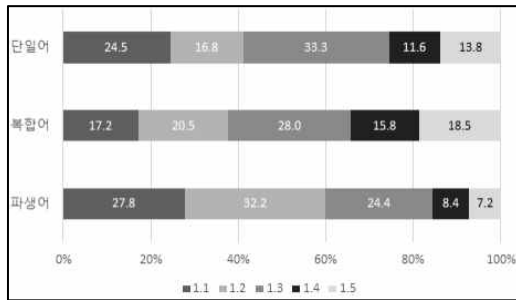
<표11> 한·일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의 어구성 (()안은 %)

	개별어수				전체어수			
	단일어	합성어		계	단일어	합성어		계
		복합어	파생어			복합어	파생어	
한국	1,806 (53.0)	965 (28.3)	640 (18.8)	3,411 (100)	7,906 (68.3)	2,036 (17.7)	1,580 (13.7)	11,522 (100)
일본	2,113 (61.4)	777 (22.6)	549 (15.9)	3,439 (100)	8,814 (77.8)	1,255 (11.1)	1,261 (11.1)	11,330 (100)
χ^2 값	50.489	29.306	9.350		245.038	201.477	35.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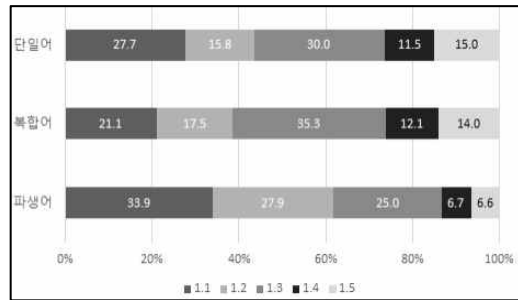
한국은 복합어 및 파생어에서, 일본은 단일어에서 유의차가 높으며, 개별어수에 비해 전체어수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국은 개별어수 및 전체어수를 막론하고 단일어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복합어, 파생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국 모두 단일어에 고빈도어가 많아, 전체어수에서 단일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복합어 및 파생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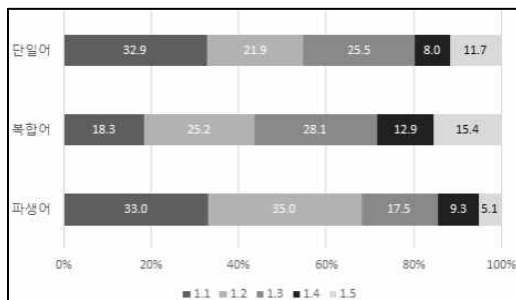
<그림5~8>은 <표11>의 어휘를 어구성별로 『分類語彙表』(1964)에 의거하여 5개 대분류의 의미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지어 이하, 각각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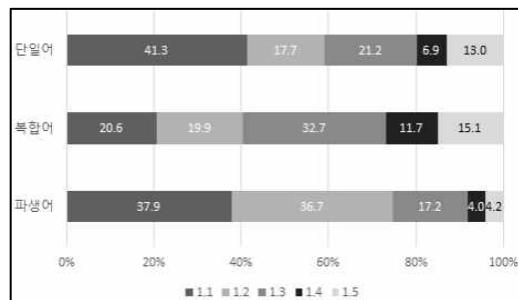
〈그림5〉 한국 개별어수 어구성별 의미분포



〈그림6〉 일본 개별어수 어구성별 의미분포



〈그림7〉 한국 전체어수 어구성별 의미분포



〈그림8〉 일본 전체어수 어구성별 의미분포

5.1 단일어

한국 교과서에서 단일어는 개별어수 1,806어, 전체어수 7,906어로, 단어당 평균 4.4회 쓰였고 일본은 개별어수 2,113어, 전체어수 8,814어로 단어당 평균 4.2회가 쓰였다. 단일어는 양국의 교과서 어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림5~8〉과 같이, 양국 모두 〈1.3〉, 〈1.1〉, 〈1.2〉의 비중이 높다. 이는 앞서 4장에서 다룬 어종과 관련이 있다. 즉, 〈1.3〉에서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일어, 〈1.1〉에서는 고유어로 이루어진 단일어의 비중이 높다. 특히, 전체어수의 경우에는 형식명사 및 지시, 시간, 공간 등과 관련된 단어에 단일어가 많아,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상위빈도 15어이다.

- 한국: 것*(366), 나(210), 수*(196), 내(126), 사람(122), 말(103), 때(99), 우리(99), 일(68), 집(67), 그(3 인칭, 63), 손(51), 너(48), 소리(45), 앞(45)
- 일본: の*(518), こと*(431), それ(131), 人(129), もの*(128), 僕(91), とき(89), 私(84), 中(80), これ(69), 女(65), 上(55), 何(51), 情報(50), 今(47)

한국은 「나·내·사람·그」, 「人·僕·私」 등의 〈1.2〉, 「것·수·때·앞」, 「の·こと·もの·とき·中」 등의 〈1.1〉에 속하는 고빈도어가 많다.

5.2 복합어

한국 교과서에서 복합어는 개별어수 965어, 전체어수 2,036어로, 단어당 평균 2.1회 쓰였고 일본은

개별어수 777어, 전체어수 1,255어로, 단어당 평균 1.6회가 쓰였다. <그림5~8>과 같이, 복합어는 개별어수 및 전체어수 모두, 양국은 <1.3>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한국은 <1.2>, 일본은 <1.1>의 비중이 높다. 다음은 상위빈도 15어이다.

- 한국: 동물실험(55), 딸고만이야 아버지(27), 공정여행(26), 문화시(25), 종소리(23), 그것(22), 행복시(22), 등나무(21), 계집애(17), 그때(17), 일자리(17), 담화관습(17), 종답(14), 교차신문(交差新聞, 14), 손건조기(14)
- 일본: アゲハチョウ(24), 筑波山(21), 人々(사)(19), 母親(15), イースター島(12), 気持ち(11), 百科事典(11), それぞれ(9), 髪の毛(7), 我々(7), 丸木船(7), 戦国時代(7), 父親(6), 一年生(6), 地上絵(6)

양국 모두 고빈도어에 「동물실험·공정여행·담화관습」, 「気持ち·百科事典」 등과 같이 <1.3>에 속하는 어휘가 많다. 특히, 일본은 「アゲハ蝶·筑波山·イースター島」 등과 같이, 곤충, 산, 섬과 같은 <1.5>, 한국은 「딸고만이야 아버지·그것·행복시(市)·계집애」 등과 같은 <1.2>에 속하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많다. 복합어의 구성성분은 <표12>와 같다.

<표12> 복합어의 구성성분수 비교 (개별어수, ()안은 %)

	2개	3개	4개 이상	계
한국	822(84.0)	124(12.7)	32(3.3)	978(100)
일본	697(89.6)	70(9.0)	11(1.4)	778(100)

복합어는 2개로 이루어진 경우가 가장 많으나 3개 이상의 결합은 한국이 많았다. 다음은 4개 이상의 구성성분이 모인 예이다.

- 동물실험감독위원회 : [(동물+실험)+감독]+(위원+회)
- 등나무운동장프로젝트 : (등+나무)+(운동+장)+프로젝트
- 世界大百科事典 : 世界+[大+(百科+事典)]
- 国際平和維持部隊 : 国際+[(平和+維持)+部隊]

5.3 파생어

한국 교과서에서 파생어는 개별어수 640어, 전체어수 1,580어로, 단어당 평균 2.5회가 쓰였고 일본은 개별어수 549어, 전체어수 1,261어로 단어당 평균 2.3회가 쓰였다. 앞의 <그림5~8>과 같이, 파생어는 개별어수 및 전체어수 모두 한국은 <1.2>, <1.1> 순으로 높고, 일본은 <1.1>, <1.2> 순이었다. 특히 이들 항목의 경우, 양국 간 비중의 차이가 크다. 다음은 상위빈도 15어이다.

- 한국: 경운기(52), 사람들(40), -일(日,33), 상대방(32), -년(31), 금(20), 말하기(20), -분(사람,19), -점(17), -가지(17), 여행지(17), 듣기(14), 첫번째(14), -명(13)
- 일본: 自分達(78), 私達(35), -度(20), 子供達(17), -券(17), -年(15), 人達(13), -人(13), 仕方(12), -時(12), -日(12), 日本語(11), それら(11), -回(11), -月(10)

양국 모두 「사람들·상대방」, 「自分達・私達」 등 <1.2>의 인간을 나타내는 어휘에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를 사용하거나 「-일·-년·-분」, 「-度·-券·-年」 등의 <1.1>에 속하는 단위명사가 많다. 파생어의 접사는 <표13>과 같다. 일본이 접두사가 많고 한국은 접미사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3〉 파생어의 접사수 비교 (개별어수, ()안은 %)

	접두사	접미사(단위명사)	접두사 + 접미사	계
한국	67(10.5)	565(88.3)	8(1.3)	640(100)
일본	93(16.9)	443(80.7)	13(2.4)	549(100)

먼저 접두사의 경우, 양국 모두 「매번·매일」, 「毎度・毎日」의 「매-」와 「每-」, 「대부분·대부분」, 「大空・大声」의 「대-」와 「大-」가 공통적으로 많다. 특히, 한국은 「한가운데·한나절」에 사용된 「한-」이, 일본은 경의를 나타내는 「お-・ご-」가 많다. 접미사에서는 단위명사를 비롯하여 「-씨·-님」, 「-さん·-君·-氏」 등의 호칭, 복수 등을 나타내는 접사가 많다. 마지막으로 접두사와 접미사가 함께 결합한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한국어에서는 「비연관성·상농사꾼·역소독세」, 「부적절함·부정확함」, 일본은 「お人形さん·お一人様·お子さん·お客さん」 등이 있다. 어구성 역시 양 언어가 갖는 언어적 특징과 어휘의 의미분포가 맞물려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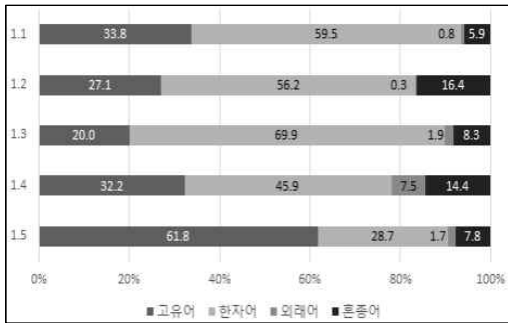
6. 의미분야별 어종 및 어구성

6.1 의미분야별 어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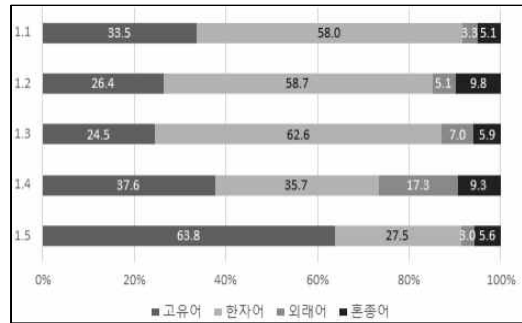
〈표14, 15〉는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의 의미분야별 어종을 개별어수 및 전체어수별로 정리한 것이고 〈그림9~12〉는 이를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개별어수의 경우이다.

〈표14〉 개별어수의 의미분야별 어종 (()안은 %)

	한국					일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계
1.1	266 (33.9)	468 (59.5)	6 (0.8)	46 (5.8)	786 (100)	314 (33.5)	543 (58.1)	31 (3.3)	48 (5.1)	936 (100)
1.2	192 (27.0)	398 (55.4)	2 (0.3)	116 (17.3)	708 (100)	164 (26.4)	365 (58.7)	32 (5.1)	61 (9.8)	622 (100)
1.3	205 (20.0)	718 (69.8)	19 (1.9)	85 (8.3)	1,027 (100)	256 (24.5)	654 (62.6)	73 (7.0)	62 (5.9)	1,045 (100)
1.4	134 (32.2)	191 (45.9)	31 (7.5)	60 (14.4)	416 (100)	141 (37.6)	134 (35.7)	65 (17.3)	35 (9.3)	375 (100)
1.5	293 (61.6)	136 (28.8)	8 (1.7)	37 (8.0)	474 (100)	294 (63.8)	127 (27.5)	14 (3.0)	26 (5.6)	461 (100)



〈그림9〉 한국 개별어수 의미분야별 어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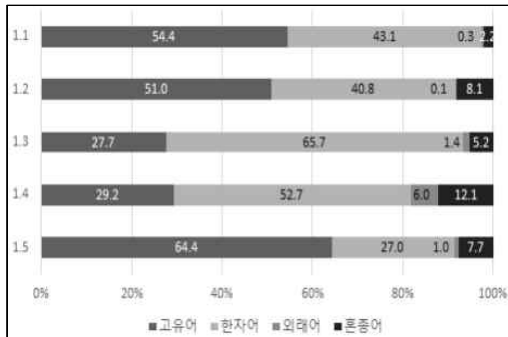


〈그림10〉 일본 개별어수 의미분야별 어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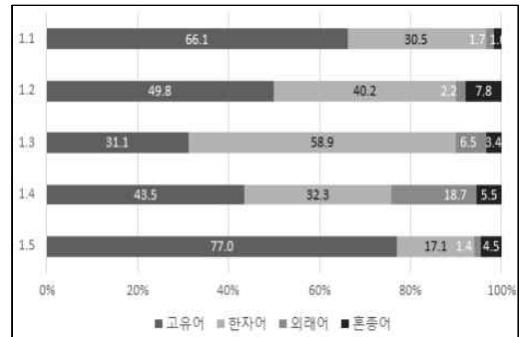
개별어수에서는 양국 모두 비중에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먼저 한국은 〈1.5〉에서 고유어의 비중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전 항목에서 한자어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특히 〈1.3〉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한자어가 인간의 정신 활동 및 행위를 나타내는 어휘인 전문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종어는 〈1.2〉에서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인간 관련어휘에 나타난 경의 및 복수접미사를 사용한 단어로 인한다. 일본은 〈1.4〉에서 고유어 및 외래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한자어의 비중이 낮은 것을 제외하면 한국과 그 경향이 같다. 일본어의 경우, 앞서 宮島(1980) 및 玉村(2005)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일본어의 언어적 특징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5〉는 전체어수의 경우이다.

〈표15〉 전체어수의 의미분야별 어종 (()안은 %)

	한국					일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계
1.1	1,901 (54.4)	1,506 (43.2)	10 (0.3)	76 (2.2)	3,493 (100)	2,892 (66.0)	1,334 (30.7)	76 (1.7)	71 (1.6)	4,373 (100)
1.2	1,428 (50.1)	1,143 (41.3)	3 (0.1)	227 (8.5)	2,801 (100)	1,132 (50.1)	912 (39.9)	50 (2.2)	177 (7.8)	2,271 (100)
1.3	793 (27.6)	1,885 (65.7)	39 (1.4)	150 (5.2)	2,867 (100)	777 (31.1)	1,472 (58.9)	163 (6.5)	86 (3.4)	2,498 (100)
1.4	305 (29.2)	550 (52.7)	63 (6.0)	126 (12.1)	1,044 (100)	349 (43.5)	259 (32.3)	150 (18.7)	44 (5.5)	802 (100)
1.5	848 (64.4)	355 (26.9)	13 (1.0)	101 (7.7)	1,317 (100)	1,067 (77.0)	237 (17.1)	20 (1.4)	62 (4.5)	1,386 (100)



〈그림11〉 한국 전체어수 의미분야별 어종



〈그림12〉 일본 전체어수 의미분야별 어종

전체어수에서는 양국 모두 〈1.5〉, 〈1.1〉, 〈1.2〉에서 고유어의 비중이 높고, 〈1.3〉은 한자어의 비중이 높았다. 〈1.4〉에서는 한국은 한자어 및 외래어, 일본은 고유어 및 혼종어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외, 외래어의 경우, 한국은 생선물과 관련된 〈1.4〉, 일본은 야구와 관련된 〈1.3〉에서 비중이 높다.

6.2 의미분야별 어구성

〈표16, 17〉은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의 의미분야별 어구성을 개별어수 및 전체어수별로 정리한 것이고 〈그림13~16〉은 이를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개별어수의 경우이다.

〈표16〉 개별어수의 의미분야별 어구성 (()안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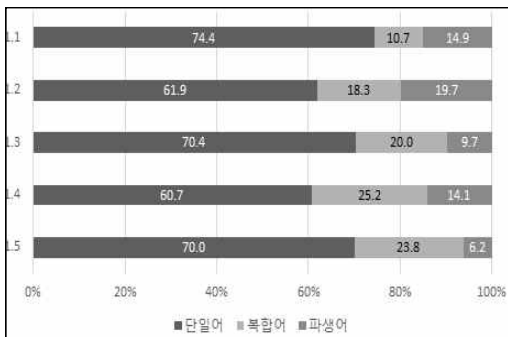
	한국				일본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계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계
1.1	442 (56.3)	166 (22.4)	178 (21.3)	786 (100)	586 (62.8)	164 (17.5)	186 (19.7)	936 (100)
1.2	304 (42.9)	198 (28.4)	206 (28.8)	708 (100)	333 (53.5)	136 (21.9)	153 (24.6)	622 (100)
1.3	601 (58.4)	270 (26.4)	156 (15.2)	1,027 (100)	634 (60.7)	274 (26.2)	137 (13.1)	1,045 (100)
1.4	210 (50.5)	152 (36.5)	54 (13.0)	416 (100)	244 (65.1)	94 (25.1)	37 (9.9)	375 (100)
1.5	249 (52.3)	179 (38.0)	46 (9.7)	474 (100)	316 (68.5)	109 (23.6)	36 (7.8)	461 (100)

개별어수에서는 대부분의 의미분야에서 단일어의 비중이 가장 높고 비중에서도 〈1.2〉에서 낮은 것을 제외하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복합어는 한국은 〈1.5〉, 〈1.4〉 순이고 일본은 〈1.3〉, 〈1.4〉 순이었다. 파생어는 양국 모두 〈1.2〉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이는 앞서 6.1에서 혼종어의 비중이 〈1.2〉에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현대에서 의미가 변화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혼종어는 곧 복합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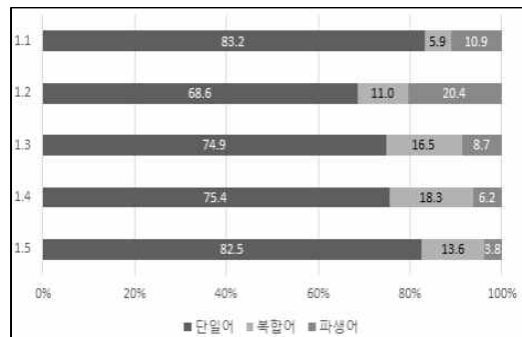
〈표17〉은 전체어수의 경우이다.

〈표17〉 전체어수의 의미분야별 어구성 (()안은 %)

	한국				일본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계	단일어	복합어	파생어	계
1.1	2,598 (74.4)	373 (11.1)	522 (14.6)	3,493 (100)	3,637 (83.1)	258 (5.9)	478 (11.0)	4,373 (100)
1.2	1,735 (60.9)	513 (19.7)	553 (19.4)	2,801 (100)	1,558 (68.9)	250 (11.1)	463 (20.0)	2,271 (100)
1.3	2,017 (70.3)	573 (20.0)	277 (9.7)	2,867 (100)	1,870 (74.9)	411 (16.5)	217 (8.7)	2,498 (100)
1.4	634 (60.7)	263 (25.2)	147 (14.1)	1,044 (100)	605 (75.4)	147 (18.3)	50 (6.2)	802 (100)
1.5	922 (70.0)	314 (23.8)	81 (6.2)	1,317 (100)	1,144 (82.5)	189 (13.6)	53 (3.8)	1,386 (100)



〈그림15〉 한국 전체어수 의미분야별 어구성



〈그림16〉 일본 전체어수 의미분야별 어구성

양국 모두 단일어의 비중은 5개 의미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1.1〉 및 〈1.5〉에서 특히 높은 이유는 양국 모두 의존명사의 종류 및 빈도가 높고 동식물 및 자연과 관련하여 단일어가 많다는 점이다. 복합어는 〈1.4〉에서 높은데, 어휘수가 적다. 각각, 「빨랫줄·술독·고무공·밥상·골목길」, 「下駄箱・空き缶・懐中電灯・丸木船」 등의 생산물 및 도구의 경우, 복합어를 통해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파생어는 〈1.2〉에서 가장 높은데, 이는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인간활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어휘에서 접사의 사용이 많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7. 결론

이상, 한국과 일본에서 2020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의 어종 및 어구성에 주목하여, 이를 『分類語彙表』(1964)에 의거한 의미분포상의 특징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또한, 의미

범주별로 어종 및 어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교과서 어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양국의 교과서 어휘의 어종 및 어구성은 양 언어의 언어적 특징과 의미분포상의 특징이 맞물리면서 교과서간 유사성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교과서가 개정되는 만큼 나라별 교과서 어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고가 교과서 제작의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姜旻完(2019) 「語彙研究の現状と展望」 『일본어학연구』 59, 한국일본어학회, pp.51-66
- 김태은(2014) 「중국어의 외래어 수용과 대응」 『인문과학연구논총』 35-3(39),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39-74
- 朴成恩・李美淑(2016) 「한국과 일본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세계명작동화의 어휘 연구」 『일본어교육연구』 35,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33-146
- 裴株彩・朴志沆(2015) 「韓日기초어휘의 어종 비교」 『일본연구』 38, 중앙대학교일본연구소, pp.155-175
- 宋正植(2009) 「『中学校教科書』語彙比較-意味分類別構造分析を通じて-」 『일본어교육연구』 16,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39-45
- 申玟澈(2009) 『韓国語と日本語の語彙比較研究』 어문학사, pp.10-93
- 심재기 외(2011) 『국어 어휘론 개설』 지식과교양, pp.11-180
- 양민호(2014) 「시대구분을 통해서 살펴본 일본어 외래어 수용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5-3(39),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75-94
- 吳海蓮(2011) 「『和語名詞』+『和語名詞』型複合名詞の語構成」 『일본학보』 55, 한국일본학회, pp.81-88
- 吳暎敬(2013) 「한·일 일간신문에 나타난 어휘 연구-사회면을 대상으로-」 『일본어교육연구』 25,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43-158
- 윤영민(2011) 『현대 한·일어 접사의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9-62
- 尹慧仁・李美淑(2019) 「한국과 일본의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의 어구성 및 어종 연구」 『일본학보』 118, pp.69-90
- 李美淑(2016)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어휘 분포 대조」 『일본언어문화』 37, 한국언어문화학회, pp.203-229
- _____(2018a) 「한국과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교 급별 국어교과서 어휘 변화 연구」 『일본학보』 116, 한국일본학회, pp.65-84
- _____(2018b) 「한국과 일본의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학년 급별에 따른 등급용 어휘 연구」, 『일본어교육연구』 45,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95-111
- _____(2019) 「2019년 현재 사용 중인 한·일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 연구」 『일본어교육연구』 49,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89-106
- 이삼형(2017)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pp.29-48
- 장원재(2005) 「한국에서의 일본어 어휘교육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어일문학연구』 52-1, 한국일본어일문학회, pp.25-41
-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pp.1-20
- _____(2014) 「한국어의 외래어 수용과 대응」 『인문과학연구논총』 35-3(39),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3-38

- 홍영주(2015) 「일본어와 한국어의 명사 언어 구성에 대해서-결합 관계와 구성 형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54,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313-330
- 李庸伯(2004) 『語彙の比較研究』, 比較語彙研究の試み12, 語彙研究会, pp.1-124
- 金直洙(2004) 「日韓「基本語彙」の比較研究-その選定及び意味分野別構造分析を中心に-」 『語彙研究叢書1 比較語彙研究の試み11』, 語彙研究会, pp.1-115
- 国立国語研究所(1964) 『分類語彙表』, 国立国語研究所資料集6, 国立国語研究所
- 田中章夫(2005) 「語種論の課題」 『日本語学 特集テーマ別ファイル no.4 語彙(Ⅱ)』, 宮地裕編, 明治書院, pp.9-19
- 玉村文郎(2005) 「基本語彙と語種」 『日本語学特集テーマ別ファイル no.4 語彙(Ⅱ)』, 宮地裕編, 明治書院, pp.20-29
- 譚利群(2009) 「単語の語構成について-人を表す名詞を中心に-」, 『福井工業大学研究紀要』 39, pp.475-484
- 宮島達夫(1980) 『意味分野と語種』 国立国語研究所 研究報告集, pp.1-16
- 森田良行他(1989) 『ケーススタディ 日本語の語彙』 桜楓社, pp.42-65
- 山本清隆(2005) 「単純語・複合語・派生語」 『日本語学特集テーマ別ファイル no.3 語彙(Ⅰ)』, 明治書院, pp.222-229

[Abstract]

A Comparison of the Word Types and Word Structure of the Vocabulary in the National Language Textbooks Currently Used for High Schools in Korea and Japan

This study examines the word types and word structure of the vocabulary in national language textbooks currently used in 2020 for high schools in Korea and Japan, and analyzes them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mantic distribution according to *Bunruigoihyou* (1964). This study also aims to analyze the word structure and word type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meaning in order to explic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textbooks of the two countries. As for research method, chi-squared test was used to calculate significant differences and compare them.

The textbook vocabulary of both countries shows similar characteristics in the number of individual words, but the difference in the total number of words is great. The analysis of the total number of words shows that Korean textbooks have a high proportion of Chinese characters and hybrid words in word types, and compound words in word structure, with relatively more words that consist of at least three components. On the other hand, Japanese textbooks have a high proportion of native words and loanwords in word types, and simple words and derivatives in word structure, and use more prefixes than Korean textbooks.

The analysis of word types by five areas of meaning shows that textbooks of both countries have a high proportion of native words in <1.5 Natural Objects> and <1.1 Abstract Relations>, and a high propor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1.3 Human Activities>. Particularly, the former is high in Japan and the latter high in Korea. In <1.4 Products>, Korean textbooks have a high proportion of Chinese characters and Japanese textbooks have a high proportion of native words. Textbooks of both countries show a high proportion of derivatives in <1.4> and <1.2 The Subject of Human Activities>. Analysis of the word structure by areas of meaning shows that simple words have the highest proportion in both countries, and Japan is higher than Korea. In Korea, the use of compound words and derivatives is relatively high in <1.2> and <1.4>. Derivatives in Japan also have the highest proportion in <1.2>.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and the semantic distribution of the two languages interlock with each other.

Key Words : national language textbook for high school, vocabulary, word structure, word types, semantic distribution

◆尹慧仁 (Yoon, Hae-In)

- 소속 :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E-mail : yhi0515@naver.com

◆李美淑 (Lee, Mi-Suk)

- 소속 : 명지대학교 교수
- E-mail : lms@mju.ac.kr

논문투고일	2020. 6. 11
심사개시일	2020. 7. 8
심사완료일	2020. 7. 22
게재확정	2020. 8. 10